

## [ 종합·해설 ]

6·15 민족통일대축전 내일 개막

## 광주서 평양까지…‘통일 열기’ 달군다

평화·인권·통일의 도시인 광주에서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개최되는 것을 비롯 6월 한 달동안 제주 서귀포와 금강산, 평양에서 잇따라 남북행사가 열려 다시 한 번 한반도에 뜨거운 6월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3~6일 제주 서귀포에서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가진 데 이어 6·15 공동선언 6돌 공동행사를 14~17일 광주에서 개최한다. 19~30일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이 합류하고, 27~30일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북방행사에 참석하는 등 6월 캘린더에는 남북행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출발은 좋았다. 지난 5월 말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됨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서귀포 경협위가 적지 않은 합의들을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남북의 고위 당국자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6·15 공동행사에 이어 DJ의 평양 방문을 통해 이번 6월도 이른바 ‘6·17면담’이 이뤄진 지난해 봄지 않은 성과를 내다보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1차적인 관심은 6·15 공동행사에 쏠리고 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 간 대규모 행사인데다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번 6·15 행사는 ‘당국 대표단이 민간 행사에 참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북측이 최근 통보한 대표단 명단은 지난해 6·15나 8·15 행사 때와 비교해 직급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이 14일 오후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앞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당국간 공식 행사의 기회는 비록 적지만 중요한 점은 당국자들 사이에 폭넓은 대화

경협·DJ 방북…한반도 ‘뜨거운 6월’  
남북관계 개선 6자회담 재개 기대

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행사를 앞두고 이동 중에도 같은 승용차에 탑승해 허심탄회한 압장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사적 보장조치에 막혀 열차 시험운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추후 더 큰 합의를 위한 정지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DJ가 6·15 행사에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데 이번 행사를 통해 DJ 방북의 시기, 절차,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6월 중 남북행사의 합의대로 2차 국방장관회담의 백두산 개최와 베이징(北京)에서의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DJ가 방북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있는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촉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회소식이 전해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DJ의 방북을 주시하고 있다

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서귀포에서 시작된 6월 남북관계 일정이 DJ 방북을 통해 평양까지 올라가는 여세를 몰아 2000년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당시의 합의대로 2차 국방장관회담의 백두산 개최와 베이징(北京)에서의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백낙청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상임대회장(맨 왼쪽)이 12일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며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행사위원회 공동대회장단과 운영위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내외 방문객 1만 2천여명…생산·부가가치 유발 220억원

## 광주 노벨상 수상자 정상회의·통일 대축전 경제적 효과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와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광주시가 지금까지 치른 국제 행사 중 규모는 물론 의의 면에서도 가장 큰 행사다.

두 행사 개최로 광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전 세계 속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우뚝 서는 유·무형의 효

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가 전문기관에 경제파급 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두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방문객 총 1만 2천여명 ▲생산 유발효과 약 15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5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 183명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 예측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는 행사 관계자 및 국내외 언론 등 2천 명이 방문하며, 6·15 축전에는 남북·해외 대표단 550명을 비롯 정부지원단 200명, 취재·해외관관단 9천명 등이 광주를 찾을 예상이다.

더욱이 광주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

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정상회의와 6·15 축전에는 국내외 여론 주도층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기회로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디자인비엔날레 등을 널리 알려 광주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과도 연계하는 부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 ‘장관급’ 단장

공연단 22명 등 민간 대표단 128명 규모

## ■ 북측 대표단 누가 오나



김영대 대표단장



안경호 민간단장

12일 통일부가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

측 당국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축전 기

간 동안 광주를 찾을 북측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문 인사들이 지난해 열린 6·15와 8·15 행사에 비해 ‘급이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의 당국 대표단장으로 선임된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 5명의 명예 공동위원장 중 1명이며,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겸임하고 있다. 주로 남북 간 민간 교류에서 활성화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관급 인사’로 전해지고 있는 김 단장은 지난해 6·15(평양)와 8·15(서울) 행사 당시 북측 단장을 맡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보다 직급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비서가 제외되면서 개막식 특별연설에 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또 지난 8·15 때 남측은 대남사업의 최고 실력자 린동우 노동당 통일전선 제 1부부장도 명단에서 빠졌다. 린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개최된 ‘김정일·정동영 면담’ 때 북측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배석한 인물로, 대남 라인의 실무사령탑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당국 대표단의 5인 대표로 선임된 백룡천 내각 사무국 부장은 지난 6·15 축전 때 북측의 16인 대표 중 한 명이었으며, 박진식 장관급 회담 대표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제 18차 남북장관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민간 대표단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의 163명과 비슷한 규모다. 단장인 안 서기국장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을 맡고 있는 북측의 간판급 대남밀꾼이다. 안 서기국장은 지난 6·15 통일대축전에서도 북측 민간 대표단장을 맡았다.

/임주형기자 jhl@kwangju.co.kr

## 경찰·국정원 경호·경비 비상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광주 개막을 앞두고 경찰과 국정원이 참석자들에 대한 경호·경비 업무로 비상이 걸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등 10명이 넘는 세계 정상급 인사와 150명에 달하는 북측 대표단 일원에 광주로 대거 집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까지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개막연설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경찰은 더욱 경호·경비 업무에 진땀을 빼고 있다.

12일 전남지방경찰과 국정원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경찰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북측 대표단이 속으로 사용할 무등파크호텔과 주요 행사장인 월드컵경기장과 DJ컨벤션센터, 문예회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벌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참석자의 속으로 사용될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마친 상태다.

경찰은 6·15 통일대축전의 주요 경호·경비업무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장소 등에 대한 경비 업무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회의는 요인 경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랑으로’ 기득한 부양

- 사랑으로 하는 부양
- 관리할 줄 아는 부양
- 사랑해 줄 수 있는 부양

## 사랑으로 부양

- 사랑으로 하는 부양
- 관리할 줄 아는 부양
- 사랑해 줄 수 있는 부양

2006년 11월 입주예정!  
062) 368-8322  
부양